

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 2021년 추수감사주일은 예배회복의 날 ◎

-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 *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오늘 오후예배는 이웃과 함께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모임]

1. 임시당회 - 오늘 주일3부예배 후 / 당회실

[알림]

1.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 오늘 오후예배 시 / 주최: 복지사역국
2. 선교주일 - 다음 주일(28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 2022년 선교헌금 작성
3. 동대전제일노회 여전도연합회 - 22일(월) 오전11시 / 신탄중앙교회

[담임목사 동정]

1. 대전극동방송국 직원예배 설교 - 26일(금) 오전 8시 / 극동방송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전상순 전도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송경호
부목사	고윤철	오상욱	김종명		윤종명	황덕순	임현성	김수중	임인성
전도사	김명순	조정욱	전상순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김민준(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대용	최영일	윤재룡
	안성민(유년)	이정아(유치)			안철호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정기조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술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1. 11. 21 (NO. 63-47)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추 수 감 사 주 일

1부 / 오전 7:00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 입례송	성도여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행복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정구훈 집사(1부) / 임현성 장로(2부) / 김수중 장로(3부)
찬양	예루살렘(2부) / 할렐루야(3부)
성경	골 3:15~17
설교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587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송축해 내 영혼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본당)	수요일예배 1부/오전 10:00(본당) 2부/저녁 7:30(중예배실)
* 찬양: 드림 찬양단 * 기도: 김다현 자매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창 13:1-12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 찬양: 주찬양단 * 기도: 윤종명 장로 *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 성경: 요 3:16 “최고의 사랑” 2부 쌀나누기 행사	* 신앙고백: 사도신경 * 기도: 이종란 권사(1부) 이상경 집사(2부) * 설교: 고윤설 목사 * 성경: 눅 5:17-26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 담당 교역자 -	* 찬양: 아이노스 찬양단 *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 부	류창선 집사	안내위원		
	2 부	김수종 장로	식당봉사	금 주	
	3 부	임인성 장로		내 주	
주일새벽	금 주	김혜정a 권사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종현 김태순 박노태 이길천 이종규 우희정 임춘수	
	내 주	유정화 권사			
주일오후	내 주	김영천 집사	차량운행	1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2호/	이본구 집사 010-8281-3779
수요일예배	1 부	김영자b 권사		3호/	정구훈 집사 010-3402-5364
	2 부	이수진a 집사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5호/	이율성 집사 010-9033-5338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	목요영성기도회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저녁 8:00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전 9:00	매 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청년부	오후 2:00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22일)	최정숙 고한례 장영애
화 (23일)	송정숙
수 (24일)	공종호
목 (25일)	오상욱 조정옥
금 (26일)	고윤설 전상순
토 (27일)	이종욱 유창웅 김정식 송순례
주일 (28일)	정영자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이연옥 집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영성기도회	자녀 8시~10시	본 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욱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 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21일(주일)	22일(월)	23일(화)	24일(수)	25일(목)	26일(금)	27일(토)
성경	잠19-21	잠22-24	잠25-27	잠28-29	잠30-31	전1-3	전4-6

♠ 꽃꽂이

* 금주 : 박충순 집사, 오명숙 집사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 정	학습·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 자 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 역 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 동 체 를 통 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험 하 기	담 임 목 사
	중 보 기 도 학 교		6주	기도 헌신자 훈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1부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11월 행사 안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월)~6일(토) / 하반기 특별새벽기도회 * 7일(주일)까지 3주간 / 문답 교육 * 13일(토) / 당회문답 * 14일(주일) / 성례주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주일)~15일(월) / 2022년 목회계획 * 21일(주일) / 추수감사주일, 사랑의 쌀 나누기 * 28일(주일) / 선교주일, 행정당회 |
|--|--|

위드코로나 단계에 따른 교회생활 안내

1. 주일 2,3,4부(청년)예배 좌석 50%이내 대면예배와 온라인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2. 새벽예배, 주일1부, 주일오후, 수요일예배, 목요일성기도회는 좌석 50%이내 대면으로만 드립니다.
3. 주일학교는 좌석 50% 이내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4.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두손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정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채책 / 몽골
-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율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신태평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가야곡중부교회 · 총신대학교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신학교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동대전중학교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가양중학교
- 두란노아버지학교 · 명석고등학교
- 주바라기선교회 · 내륙동 노인회
- 대전기독교방송 · 가양2동 노인회
- 대전국동방송 · 신도 노인회
- 기독교임즈 · 더퍼리 노인회
- 내륙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슬기로운 인생 사용설명서(3)(전12:1-8, 13-14)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지혜의 왕 솔로몬은 풍부한 인생경험을 바탕으로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전도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마지막장 마지막 절이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간곡하게 전해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본문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진리가 담겨 있다.

1.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12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란, 지금까지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말한다. 그것은 세상일은 한 마디로 “헛되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의 구조는 처음과 끝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뜻을 박고, “헛되도다”라는 표현을 무려 22번이나 사용한다.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신다.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미련을 둔다거나, 세상에서 만족을 찾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간다. 그 자리에서 인간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고, 죄인 됨을 인정하게 되고, 유한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자만심보다,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주신다.

2.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눅12장에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소유의 넉넉한데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 하나님 경외는 사람의 본분이요 인생의 근본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이 인생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죽은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가장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자.

3.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대비하십시오.

슬기로운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대비해야 한다. 성경은 두 가지의 종말을 말씀한다.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죽는 순간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그것이 어떤 종말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천국이나, 지옥이나 심판하실 것이다.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에게는 천국에서 후한 상급을 주시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산 자에게는 지옥 형벌로 심판하실 것이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준비하자.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6일(금)	찬 545장	전 3:1-15	다 때가 있나니
전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인간이 조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처럼 범사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뤄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자신의 모든 먹고 마심을 통제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매 순간 이에 준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경외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27일(토)	찬 380장	전 6:1-12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전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불행한 일로 한 부자의 예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라는 재물과 부요, 존귀 등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의 부를 누리니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이를 누릴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많은 재산이 주어지며 백 명의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 재산으로 온전히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도 제대로 묻히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 부요, 존귀, 다산, 장수’ 자체가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관심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돼 있습니까?			
28일(주일)	찬 549장	전 7:8-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전도자는 사람이 삶의 유한함을 인식했다면 현실 도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지혜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자가 말한 지혜자의 삶이란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만을 보고 이 땅을 잔칫집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자가 말하는 잔칫집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땅에서 삶의 유한함을 떠올리게 하는 초상집을 마음에 두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지하라고 말합니다. 이 교훈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대표하는 잔칫집에 마음을 두기보다 삶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초상집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물

교회외부 리모델링 헌금

헌금 소개 - 374,616,094원, 작성 소계 - 133,803,000원, 합계 - 508,419,094원

강순애 김복실 김숙자b 박일용(조영희) 성성식(권금자) 신신혜 안장현
안재택(이상숙,안재선,대경이엔지) 오명근(김화순,오예찬, 오슬기) 오세종(김윤정b)
윤인애 윤혜성 이서경 이인옥(김은현) 이준희 이해정 인치경(김영재) 정숙남
최영일(순정숙) 편다은 편대성 편도윤 한영희 총여전도회 4여전도회 무명

십일조 헌금

강주연(김재열) 고윤설(박혜란) 구왕성 구은정 권소열(김순이) 권영숙
김길주(박순자a) 김덕현(하점순) 김미숙(김장식) 김복실 김석순 김수종(김영자b)
김연수 김은현(이인옥) 김정임 김종명(이은진) 박도태(최영란a) 윤순금(박미자)
박문선 박상엽 박영자(곽민근) 박충순(오명숙) 배정만 변정순 서성모(이두한)
성성식(권금자) 신신혜(편대성) 심윤중 안장현 안재선
안중근(국은희,안중경,충만치킨) 양승희 오양순a 이길천(윤석의) 이명국(이용매)
이상경 이상우(이성희) 이서경 이선옥 이영학(김성순) 이원명(우종선) 이준희 이해정
전상순(정구영) 정고현(김옥자) 정기정 정숙남 조규연(서정순b) 조상용(김혜경)
주정숙 주정화(박종권) 진정숙(권태중) 최국현(이영숙c) 최영애 최현순 최현주
하용호(문희정) 한일민(고은주) 홍영숙 황명옥 황양례(김종문)

감사 헌금

강영미 권상희 김복실 김성렬(장영희) 김신(맹경연) 김연수 김영자d 김영천(남정혜)
김예화 김정예(황진석) 김태순 박대일(박평란) 박명환(김은주) 박문선 박일용(조영희)
신윤석(이지혜) 안미정 안성민(박지예) 안중근(국은희) 안학원 오상옥(김진남)
오연자(박문기) 유춘성 윤상애 이길천(윤석의) 이대성(송미옥) 이래민 이사랑(김민준)
이수진b 이은희 이춘권(김연자) 전기숙 전상순 정경희 정숙남 조성일 최윤희 최진수
무명3

선교 헌금

고윤설(박혜란) 곽민근(박영자) 권소열 김경덕(이수진a) 김길주(박순자a) 김다빈
김덕현(하점순) 김복실 김석순 김숙자b 김영자d 김은현(이인옥) 김정술
박도태(최영란a) 박민지 박문선 박상규 박정자b 박희인 배정만 변정순 서성모
성성식(권금자) 안장현 양승희 오양순a 윤성수 윤인애 이길천(윤석의,이연주,이승준)
이남운(한도희) 이덕성(유희숙) 이명국(이용매) 이상경 이서경 이선옥 이인옥 이준희
전상순(정구영) 정경희 정고현(김옥자) 정숙남 조상용(김혜경,조성환,조은혜) 조성일
주정숙 진정숙(권문수) 최국현(이영숙c) 최화단 하용호(문희정,하진성,하진우,하진영)
홍영숙 홍주희 황안순 황양례(김종문) 4남전도회

교회사랑 천사헌금 김은현 이인옥

주수감사 헌금 김덕현(하점순) 멜라니 심윤중 황덕순(김기환) 황명동(이후남,황훈)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131-019-689782 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농협 301-0072-3936-51 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2일(월)	찬 430장	잠 24:1-9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	--------	----------	------------------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폭력이 입술로 나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인생을 의미하는 집이 건축되는 과정을 지혜와 명철을 통해 설명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혜와 명철이 인생을 의미있게 세워가는 토대가 됨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집은 지혜의 실질적인 측면인 ‘지식’으로 방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져 가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삶의 원리가 되는 ‘지혜’와 지혜가 주는 삶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며 지식이 있는 자는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역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갈수록 더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6절의 ‘전략’은 방향을 강조하며, ‘지략’은 여러 사람의 조언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전쟁의 방향을 세우면 다음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조언을 모읍니다. 이러한 장수는 성을 굳건하게 하여 어리석은 자에게서 보호합니다. ‘사악한자’란 ‘악한계획의 주인’이란 뜻으로 악한 행동을 계획하며 악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꾸미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어리석은자의 계획’이란 뜻으로 미련한 자의 행동의 모든 결과가 죄인 것을 나타냅니다.

23일(화)	찬 424장	잠 27:1-9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	--------	----------	---------------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1절)는 것은 내일을 위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돌과 많은 모래가 무거운 것과 같이 미련한 자의 분노는 함께하는 사람에게 큰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질투(투기)입니다. 질투는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진정한 친구는 책망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책망은 원수의 거짓된 입맞춤보다 아프지만 훨씬 유익합니다. 7절에서 ‘배부른 자’는 모든 것을 가져서 마음이 교만하여 충고를 멀리합니다. ‘싫어하고’는 발로 밟는다는 뜻으로 극한 혐오와 멸시를 나타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진심 어린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며 보금자리를 떠난 새처럼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진실한 충고를 당시 귀한 기름과 향에 비유한 것은 진실된 충고가 높은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4일(수)	찬 516장	잠 28:1-9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	--------	----------	----------------

악인은 뒤쫓는 자가 없어도 불안과 공포로 인해 시달리게 됩니다. ‘도망하나’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목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다는 뜻으로 매우 큰 공포를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언제 어디서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 단순히 겁을 내지 않는 것을 넘어 안도감과 평안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이 많아지면 주관자가 많아지는데 이것은 잦은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실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오히려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은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너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율법을 버리고 오히려 악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옳은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버린 악인은 그릇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며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의인은 율법을 지키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의인은 아버지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모든 것들을 의인에게로 돌리십니다.

25일(목)	찬 364장	잠 30:1-9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	--------	----------	-------------------

30장의 저자인 아굴은 본문에서만 등장하며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굴은 자기를 2절에서는 ‘짐승’과 ‘총명하지 못한 자’로, 3절에서는 ‘지혜를 배우지 못한 자, 거룩한 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인간적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며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참된 지식, 즉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의 부족함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순전’은 금속을 정련하여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 없이 절대적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지켜 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족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것을 추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전합니다. 아굴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거짓되지 않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